

창간 15주년 특별기획으로 Jacques Benichou 프랑스 항공우주산업협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꾸며 보았습니다. 기술협력 다변화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탈냉전 이후 선진각국은 군비축소로 가는 반면, 아시아등에서는 군비경쟁의 추세를 보이는데 앞으로 세계 군수시장의 동향을 전망해 주신다면...

세계의 군수시장이 침체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은 당면 최우선의 문제로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의 군비축소도 양적인 감축이지 첨단무기 개발을 통한 경쟁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시장은 지금이 비록 쇠퇴기라 하더라도 결국은 끝까지 남아 커다란 시장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협회(GIFAS)가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데 활동내용과 사업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파스는 민간 및 군사 항공우주 분야에 관련된 프랑스 기업체 전체를 회원으로하는 단체입니다.

Aerospatiale, Dassault, Thomson-CSF 등 200여개의 지파스 기업체는 항공우주관련분야를 총망라하는 산업을 대표하여, 끊임없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전세계 지역의 국가들과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군수산업전에 프랑스 업체의 참가가 두드러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한국과의 협력사업과 기대는 무엇인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양국 각 기업의 상호 이해증진에 주력하였습니다. 현재 몇 건의 협상이 진행중이며, 한국 업체와의 공동생산과 참여를 높이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항공우주기술은 유럽에서 최고이며, 모든 기술을 망라하여 가지고 있고, 타국과 공동으로 협조한 사업경험도 풍부하여 한국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한국이 필요로하는 기술지원 및 협력사항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기술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특별한 항공우주산업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첨단전투기(라파엘)을 생산하고자 할 때 75%는 정부에서 25%는 민간업체에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추진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군사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고 정부에서 컨트롤하기위해 국영기업으로 시작하였지만, 대부분이 점차 민영화된 상태이며, 남아있는 몇개의 기업도 조만간 민영화 될 것입니다. (대답 : 안상남)